

<달밤체조 2015> 오디션 대본

## 최영인(여 35세 / 32-37세 지원 가능)

### S#5. 거리+ 준기 차. 새벽

BG와 함께 영인 오프닝 나레이션.

영인 (NA)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검찰출신이 많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공천을 받고 선거에 나가서 당선된 거니까....검사출신의 국회의원이 꼭 이상한 건 아니겠죠. 이상한 건 그들의 검사시절 행적이 국민을 위한 검사였던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.... 먼 훗날 공천을 받게 되는 그 당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 검사였다는 거...이런 점들이 이상한 거죠. 하긴 기자 출신 의원들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니까 검찰 출신만 가지고 뭐라는 것도 형평에 안 맞을 수 있겠네요. 그 당에 출입하다가 그 당의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는 기자들... 그 때까지의 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. 안쓰러운 겁니다. 그래서 신뢰도 1위인 손석희 같은 언론인은 자신에 대한 출마설이 나돌자 방송에서 불출마선언까지 한 거겠죠. 언론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자라야 하니까...요. 위치독이라고 하죠. 감시견...권력을 감시하랬더니 외려 국민을 감시하는 일이....없었나요...? 감시견이 아니라 사냥개거나 애완견을 자처한 적이 혹 없었을까요? 검찰이나 기자나....

### S#45. 스튜디오.

헤드폰 쓴 영인과 승준. 승준 손은 콘솔에, 영인은 오프닝중...

영인 : 전 정권의 선박규제 완화로 세월호가 가라앉았고,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진 자들의 재테크 수단이 돼 버린 게 아파트죠. 이번 정권도 부지런히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.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거죠. 일단 제대로 된 거수기 아닌 정치인들 좀 수입하고 워터게이트를 취재했던 언론사 기자들을 수입하는 겁니다. 할 말 좀 하게. 제대로 된 국방장관도 수입하고, 교육부장관도 수입하고...판검사들 경찰들 제대로 된 나라에서 수입해야겠네요. 시민들에게 물대포 같은 거 쏘지 못하게...이 정도만 해도 나라 꼴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?

이 연실과 아이들이 노래합니다. 산삼의 나라.  
노래 흘러나오고.

### S#67. 카페. 오후.

영인 차 두 잔 시켜 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. 들어서서 승준.  
영인을 보고 마주보는 자리에 앉는다. 영인 차 한 잔 밀어주고.

영인 : 어떻게 된 거예요? 연출정지는 또 뭐예요?

승준 : (웃으며) 갑자기 정색을 하고 말도 높이니까 무섭다 야!! 평소처럼 해!

영인 : 지금이 평소니? 평소처럼 하게? 연출정지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?

승준 : 연출 못 하는 거지.

영인 : 선례가 있어?

승준 : (고개 저으며) 드라마나 예능은 모르겠는데...라디오에선 처음이지.

영인 : 이유는? 나 때문이야? 내 멘트?

승준 : 아마도...

영인 : 이국장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방송을 했다는 거야?

승준 : 흥분할건 없고...며칠은 고생해야겠어!

영인 : 뭐야? 연출정지가 며칠이면 되는 거야?

승준 : 그게 아니고 해결하는데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서...

영인 : 오차장이 나보자던데?

승준 : 기다리고 있더라.

영인 : 나 뭐라고 그러면 돼?

승준 : 그냥 하던 대로 해! 근데...노래가 문제네...

영인 : 어떻게?

승준 : 트로트 댄스 발라드... 어쨌든 잘 나가는 노래들만 트니까... 우리하곤 정 반대의 컨셉이지....게다가 국장특명도 있을테니까... (보며) 어찌나 우리 영인이?  
영인 : 클로징 할때 네임싸인 해야지 뭐....  
승준 : 하긴 오차장은 그거 꼭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...총돌은 없겠네.  
영인 : (일어서며) 만나고 올게...저녁 같이 해! 해장국 같은 거 먹자! 속 풀리게....  
승준 : 그래! 이 동네에서 해장국 제일 잘 하는 집 찾아 놓을게. 다녀와!

영인 손 흔들고 나가는. 미소 속에 승준에 대한 신뢰가....

#### S#9. 승준 아파트입구 + 영인 차

영인 차 유턴해서 떠나고...  
떠나는 차 바라보는 승준. 그런 승준을 백미러로 보고 있는 영인.  
(E) 휴대폰 신호음.  
휴대폰 받을 생각도 없이 백미러만 보는 영인. 돌아서서 걷는 승준의 모습이 백미러에서 사라지면....휴대폰 보고 한뼘 통화 터치하는 영인.

영인 : 왜?  
준기 : (F) 지금쯤 집에 도착했겠다 싶어서요.  
영인 : 아직인데... 그리고 도착했다고 니가 전화할 이유는 먼데?

#### S#10. 한강 둔치.

한강을 바라보며 준기 전화하고 있다.

준기 : 누나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? 호전적이네?  
영인 : (F) 오늘 안 좋은 일 지금 막 생겼지! 니 전화!!

#### S#11. 거리+ 영인 차

영인 : 먼 일인데?  
준기 : (F) 나 지금 무지 좋은데 있거든요. 그래서 누나도 오면 어떨까 해서요.  
(조심스레) 당연히..  
영인 : 안 가지! (약간 궁금) 어딘데?

#### S#12. 한강둔치

준기 : 한강둔치요. 여의도쪽. 올래요? 모시러 가요?  
영인 : (F) 모시러 가요? 할 거 같으면 올래요가 아니고 오실래요!  
준기 : 그러게... 작가에다 방송 DJ시기까지한데.... (진지하게) 오실래요? 제가 모시러 갈까요?  
영인 : (F)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머니?  
준기 : 달밤..체조...?

#### S#13. 영인 오피스텔+ 영인 차

차가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.

영인 : 그래 둔치에서 체조나 하고 들어가! 마침 달 떴지?

#### S#14. 둔치.

준기: 달 떴죠. 여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. 달빛 있고요...바람소리 물소리 있고요.... (이미 전화 끊겼다. 준기 휴대폰 잠시 보다 손에 쥔 채 달 보는)

(CG) 달이 영인의 얼굴로.....휘영청...그 얼굴에서